익산시, 경제관광 분야에 130억 투입

2025년 민생경제·문화·관광등 3개 분야 37개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마련·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익산시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경제·관광 분야의 주요 신규 사업을 발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자원 확충 △체육진흥 사업 등 3개 분야 37개 신규 사업에 130억 6,8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기반을 확충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익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지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이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물류·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 판로확대 등으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금과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권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고구마(순) 축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사업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등이 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명소를 개발하고, 반려동물 동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구마(순) 축제는 익산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념행사, 전시, 학술포럼 등을 개최해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은 가람 이병기 생가 등 고택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체험형 숙박,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부송동 310-3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내실있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관광·체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다이로움 "새로운 앱에서 만나요"

기존 '착한페이' 앱→ '익산 다이로움' 앱으로 개편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多e로움)'이 오는 3월 새옷을 입는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 앱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페이'앱을 통해 다이로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익산시는 오는 3월 새 앱 '익산 다이로움'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다이로움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 앱은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위젯 기능이 더해져 빠른 충전·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또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개편 후 다이로움 택시앱을 통해 자동결제를 한 승객에게는 10%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 다이로움' 앱은 오는 3월 7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다이로움 체크카드(농협·하나·신협·전북)는 별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앱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QR결제 수수료가 면제되며, 앞서 발급한 QR 키트도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정책토론회 개최

익산시의회, 상생 전략 마련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정책 토론회'는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을 좌장으로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과 기조 발제자인 정호중 전북연구원,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이현숙 전국여성농민회, 김양순 익산시 토종연구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익산시의 토종농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일반인들에게 홍보 및 체험을 유도한 가치 전파와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호중 전북연구원은 "토종작물의 종합계획에 있어 비전과 목표, 전략체계 형태는 종합계획 형태를 취하였지만 재원계획·평가관리 등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본방향과 비전 및 전략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영역을 정하고 현실적 정책 수단을 배치하였는가 하는 점에서 현황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인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가 토종농업을 발전시킨다면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토종 종자 채종과 육종을 통해 모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귀농인들이 익산에 잘 정착하고 농업으로 경제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 토론에 참여한 소길영 위원장 및 여성농민단체들은 토종농산물의 기능 강화와 토종종자를 보존 육성하고 확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 다소 완화

2024년 12월 기준 258047명… 1년간 1933명 감소

2024년 군산시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군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1년간 1,933명이 감소한 25만8,04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결과는 군산시의 2024년도 인구 현황을 통해 분석됐다.

군산시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해왔다. 그러나, 2024년에는 감소 폭이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487명 감소에 비해 22.3% 완화된 수치다.

자연 증감 부분에서는 2023년 동월 대비 출생 983명, 사망자 수 2,263명이었던데 비해 2024년 출생아 수 1,000명(17명 증가), 사망자 수는 2,372명 (109명 증가)로 나타났다.

사회적 증감 부분에서는 2024년 전입 12,782명, 전출 13,344명으로 순 유출인원은 562명으로 작년 1,222명 대비 660명이 줄어들었다. 주된 전출·입 사유는 교육(△713명)〉직업(△398명)〉주택(△94명)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구성 비율은 50대가 17.7%로 가장 높았고, 60대(16.2%), 70대 이상(15.3%), 40대(15.2%), 30대(10.1%), 20대(9.83%), 10대(9.84%), 10대 미만(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3.0%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구암동과 수송동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25개 읍면동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사유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인구증감률에서는 군산시가 14개 시군 중 -0.74%를 기록해 세 번째로 인구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C형간염 양성자' 확진검사비 무료

군산시는 올해부터 매년 56세가 되는 군산시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양성자로 판명되면 확진 검사비와 진찰료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C형 간염 항체 검사 양성판정을 받은 시민이 확진 검사를 시행하면 관련 비용은 질병관리청에서 사후 환급해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의원에서((상급)종합병원은 제외) 확진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다. 검사 비용 신청은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받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 혁신 성공 위해 지역대학과 적극 소통 나서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E)' 연계 기반 마련

군산시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라이즈(RISE) 동행 협력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군산시 라이즈 제안사업 담당자 20여 명과 군산대학교 교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가 '2025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6일까지 모집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사업장(본사)을 보유한 창업 5년 이내 기업 15개 회사를 선정해 최대 6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컨설팅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등의 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사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5년 이내 창업기업이 겪는 창업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tartup@ksnu.ac.kr)이나 전화(☎063-469-8965~8)로도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 매주 수요일 운영 시작

익산시 다이로움 밥차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곳곳을 힘차게 누빈다.

익산시는 한 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중앙동에 위치한 이리침례교회(담임목사 조규선)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300여 명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밥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을 운영해 건강을 살피고, 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다이로움 밥차는 매주 수요일(혹서기·공휴일 제외) 취약계층에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2월은 이리침례교회에서 운영되고, 3월부터는 구역별로 이동 밥차와 문화 밥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